

제 157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전후 일본의 국제 협력과 일계인- 일계인 연구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 잇기

강연자: 최민경 (崔珉耿) (히도쓰바시대학 사회학 박사)

히도쓰바시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최민경 박사의 세미나가 4월 23일 화요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전후 일본의 국제 협력과 일계인- 일계인 연구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 잇기'라는 주제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모국인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힌 최민경박사는 이 연구가 국제협력에 초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많은 수의 디아스포라 연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다고 한다. 90년대 들어서 일계인 관련 연구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노동이나 교육의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1990년 입관법 개정으로 논의가 시작됨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한 일계인의 이해는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없어 보이나 실상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민 정책의 하나인 디아스포라 관련 정책은 많은 경우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위한 자의적인 것이, 다양한 제도 속의 이해 관계나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 협력'의 영역은 전후 일본의 사회 변동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게 변화해 왔고 이러한 변화는 일계인의 자리매김과도 연동되어 왔다. 이주 사업에서 기술 협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온 것이다. 일본의ODA를 일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관인 JICA가 '이주자, 일계인 지원'사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기에 걸쳐 이주 사업과 기술 협력 사업은 '국제 협력'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게 되며 관련 행정 기관 또한 재편성된다. 일본이 전대미문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서 국제 사회에 있어서 자리 매김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인 이민의 목적지였던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일계인의 자리매김 역시 이 과정 속에서 변화해왔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 일본은 '밖'과의 관계 재 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이 연장선 상에서 디아스포라와의 관계 또한 재구축된다.

패전 후 일본인의 해외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 된다. 그러나 외지로부터 히키아게샤의 귀환과 출생률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1952년 강화조약 체결과 함께 이민 송출이 재개 된다. 해외 이주는 패전국 일본과 국제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움직임으로서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주요 목적지는 중남미, 그 중에서도 브라질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서 해외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싶다는 의지와 연결된다. 그러나 전후 부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서 이주자 송출수가 급감하게 되자, 이주 행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1962년 해외이주사업단 JEMIS가 설립되는데 사실 이는 해외이주의 활성화 흐름이 이미 한풀 꺾이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본의 기술 협력은 전문가 파견, 연수원 초청, 기재 공여, 기술 협력 프로젝트, 개발 계획 조사형 기술 협력으로 구분된다. 단순한 자금의 흐름과는 달리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이 수반되며 이는 이주와의 친화성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사실 일본의 ODA는 아시아 중심이었으나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기술협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주 사업이 '국제 협력'이라는 명분 하에 기술 협력 사업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계인에

대한 인식은 점차 국민 국가를 단위로 한 국제 관계의 논리에 회수된다. 신규 이주자의 감소에 따라 이주 사업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당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기술 협력과의 연동을 통해 존재 의의를 모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남미 지역 일계인은 중남미 국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한다. 또한 '일계'라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연결 고리가 가지는 의미는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덧붙여 모국 일본과 디아스포라 일계인의 관계에 개발 원조가 가지는 비대칭성 권력성이 투영되게 되는데, 다시 말해, 모국으로부터 자원의 투입을 받는 디아스포라를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해외 이민=가난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이미지가 뿌리깊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사실과 공명하여 '일계인=개발도상국'이미지가 성립한다. 일본은 비교적 큰 재외 동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과 국제 개발 원조라는 두 영역의 연동이 활발이 진행되면서 정착국에서 획득한 정치, 경제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이민은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개발에 기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원의 투입을 용이케 하는 발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삼각 개발', '남남 협력'이 중요시 되면서 JICA는 중남미 지역 일계인을 중요한 파트너로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ODA 관련하여, 한국이나 유럽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 정책결정자들이 이민 간 사람들을 자국의 사람들처럼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과거 제국주의적 의식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재현을 하다가 그 이주자들이 현지인이 되어가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 사실 JICA가 설립되었을 무렵 만주이민의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 전 상황과의 단절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그 전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면성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질문: 디아스포라라는 표현 많이 쓰셨는데, 일본 정부도, 현지 일계인들도 별로 일본 정부와 관계를 원치 않는 듯한 느낌인데 다른 맥락이 아닌가?

답변: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일계인에 넣음으로써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인 것은 맞지만, 일본에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왜 모국과 나가 있는 사람들과의 인식이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도 있었고. 보여지지 않은 면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과 일본정부가 비공식적으로는 어떠한 관계성을 원했던 것 같다. 원했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 국제협력사업이 나왔을 때 이주민들은 '우리는 국제 협력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닌데 우리에게 왜 이리저'라고 느꼈을 불편함을 나타내고 싶었다.

질문: 왜 중남미 지역으로 연구의 테마를 잡으신 것인지 알고 싶다. 이주 초점이 중남미였다고 하

했는데 사실 ODA의 중심은 아시아가 아니었나? 국제협력이 진행되면서 일계인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그럼 일계인 스스로 '일본인'이라는 의식으로 변했는지도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에도 일본의 이민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답변: 우선 중남미 지역 관한 사항으로 전후 일본이 강화조약을 맺고 다양한 국제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보낼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었다. 어느 지역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을지 찾아야 했고, 실제로 호주의 경우, 일본이 사람을 보내오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남미라는 지역이 가장 전쟁의 기억과도 무관하고, 직접적 교전국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본이 국제관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역사의 부담이 가장 없었던 곳으로 추진된 곳이 중남미였다.

일계인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부러 연구에서 일계인의 반응이나 변화는 배제하였다. 당연히 일계인도 세대 교체가 되었고,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늘면서 아이덴티티가 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계인 사회는 2세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JICA에서 이민사업이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이 90년대 중반이다. 오늘 말씀 드린 것은 대량 이주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민사업은 그 후는 개별적 이민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일계인의 자기 정체성은 어떠한가?

답변: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다양하다. 일본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나누면 북미는 아시아계라는 스스로의 인식이 강하다. 중남미는 일본이미지가 좋으므로 내세우려고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일본인임을 주장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깐 브라질인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브라질에 돌아가면 다시 일계인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은 조직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고, 전쟁 때 태어나거나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서 단체적으로 일본인으로 내세우려고 한다.